

## 유처자(有妻者)와의 사련(邪戀) —나의 약혼시대(約婚時代)의 도덕

「연애는 신성하다.」 「연애는 맹목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연애의 개념으로서 누구에게나 쉽사리 떠오르는 말이다. 연애란 한 혼과 혼의 가장 순수하고 엄숙하고 고양된 상태에서의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과연 어디까지나 신성한 것이며, 순수하고 엄숙하고 고양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혼에 이해타산과 계급관념 등이 섞일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에 혼과 혼은 빈부와 계급을 초월하여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또한 맹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연애는 신성하다, 맹목적이다」하는 말은 언제나 진정한 연애에 대한 예찬이요, 변호가 되어야 할 이 말이 그릇된 연애를 예찬하고 변호하는데 사용되는 예를 우리는 허다히 본다. 단지 그릇된 만족을 채우기 위한 야합에 지나지 않을 때에도 그 당사자들의 입으로부터 자기들의 결합은 진정한 연애에서 된 결합이며, 또 연애는 신성한 결합이므로 자기들의 결합은 어디까지든지 신성한 연애라는 말을 듣는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도덕률로 보아 도저히 서로 연애해서는 안 될 사

람들이 연애에 빠졌을 때에도 연애는 맹목적인 것이요, 또 신성한 것이므로 그들의 연애는 용서되어야 할 것이라는 변호의 말을 그 당사자들이나, 그들에게 동정하는 사람의 입으로부터 듣는 수가 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변호를 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애는 한 혼과 혼의 가장 순수하고 엄숙하고 고양된 상태에서의 결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그것을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모르는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애가 성립되려면 서로 결합할 두 혼이 가장 순수하고 엄숙하고 고양된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므로, 만일 어느 편 혼에든지 조그마한 유희기분이나 불순한 감정이 섞여도 그 연애는 벌써 진정한 연애는 아닌 것이다.

이제 나의 문제인 유처자와 독신녀와의 연애로 돌아가 생각해 보자 (유처자와 유부녀와의 연애나 독신남과 유부녀와의 연애를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는 이 문제만 생각하여 보면 스스로 명백해질 것이다).

현재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와, 그가 아내가 있어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여자와의 연애는 연애에 대한 앞에서 말한 정의에 비추어 보아 불순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남자에게 아내가 있으나 아내에 대한 사랑은 이미 다 식었고, 또 여자도 그것을 미리 잘 알고 있을 때에는 그들의 연애에 순, 불순의 판단을 내리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것은 앞에서 내린 연애에 대한 정의에 비추어 보아 그런 연애에는 진정한 연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하여 그런 연애를 우리는 무조건 용인할 수 있을까.

이때에는 우리는 연애의 순, 불순의 문제를 떠나 연애가 과연 인생의 최고의 가치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연애가 인생의 최고의 그리고 유일한 가치라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연애는 진정한 연애로서 그대로 시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연애가 인생의 유일하고 숭고한 가치는 아니다. 우리 인생에는 연애 이외에 학문, 종교, 도덕, 예술 등 연애만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가치를 서로 마찰하지 않고 조화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연애는 다른 가치와 마찰되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도덕과의 마찰 여부만 생각하여 보자. 도덕이란 것은 결국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회적 공동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한 근본원리다. 다시 말하면 도덕이란 인간의 사회적 공동생활에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기 위한 규범이다. 그런데 규범이라는 것은 언제나 예외에 대하여 상도(常道)에 귀납하고 그것에서 이탈하지 말기를 요구하는 강제력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규범에 권위를 부여하는 길은 오직 그 강제력에 복종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이에 도덕의 인간사회에의 기여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도덕의 형식적 강제력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도덕이 인간생활에 기여하는 길의 하나인 그것의 형식성이 어느 시기 어느 국면에 있어서 인간성의 건전한 발양을 억압하는 질곡이 될 때가 있다. 이런 때 우리는 아무래도 이 질곡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도덕의 형식성이 인생의 어느 국면에 있어서 질곡이 된다고 그것의 형식성을 임의로 무시하여 버려도 좋을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각 개인이 도덕의 형식성을 임의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각 개인이나 사회가 쉽사리 도덕의 형식적 강제력에 대한 존경이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도덕이 그들에게 대하여 아무런 권위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덕은 결국 규범이므로 형식을 통하여서만 그것은 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성이 도덕의 질곡에 질식하게 되었을 때에도 우

리는 도덕의 형식성을 타파해서는 안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도덕은 인간의 사회생활에 질서와 통일을 부여하여 인간성을 건전히 신장시키려는 것이므로, 그것이 그 본래의 사명에서 어긋나 인간성의 건전한 신장을 저해할 때에는 그 형식적 구속력을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도덕의 형식적 구속력을 타파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형식적 구속력이 지금 그 신장을 저해하고 있는 인간성의 어떤 국면에 대하여도 본래는 그 신장을 도우라는 것이었고, 또 그리했던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도덕이 어떤 국면에 있어서 인간성의 신장을 저해할 때에도 그것의 전체적으로는 결코 인간성이 조화 있고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도덕의 구속력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시 말머리를 앞으로 돌려 이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식어 버린 남자와 연애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여 보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때에 우리는 그들 사이에 연애 그것만으로 본다면 진정한 연애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연애라 하여 그대로 무조건하고 용인할 수는 없다.

첫째 남자가 결혼을 하여 이름뿐일지 모르나 아직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남자가 결혼을 하였다든 사실은 남자가 결혼형식을 그리고 그 발전형식인 가형(家形)(이것은 결국 도덕의 형식적 측면의 한 구현이다)을 통하여 도덕적 규범에 순응하여 한 인간과 인간과의 본성에 있어서의 도덕적 조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그 실현에의 매진을 스스로나 아내에 대해서나 일반 사회에 대해서 굳이 약속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덕의 형식적 구속력을 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스스로 기꺼이 제 자신에게 부과

했던 것이다.

이에 결혼생활에서 애정이 떠났더라도 결혼에 대한 책임은 그리고 결혼상대자에 대한 의무는 더욱이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에 대한 의무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애정이 벌써 사라져 버린 사람이 판 여자와 연애에 빠진다면 그곳에 반드시 의무감과 애정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고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고민은 남자의 의무감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여자에게 대한 애정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 그리고 여자도 또한 양심적인 여자라면 그의 연애에 있어서 남자의 고민을 나누어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곳에 아내가 있는 남자가 독신녀와 연애에 빠졌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의 길이,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것의 해결의 길이 발견된다. 두 사람의 의무감, 다시 말하면 도덕감과 애정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고민은 커진다. 따라서 그들의 고민은 도덕성을 띤 고민인 것으로 우리는 그들의 고민의 양에 따라 그들의 연애의 도덕성을 비로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처자와 독신녀와의 연애에 있어서 그곳에 우리가 고민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단지 나쁜 욕망만으로 결합된 야합으로 단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 고민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머리는, 그렇다고 그 연애를 긍정하여 끄덕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연애를 그대로 시인하여 버린다면 그들이 연애의 도덕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긍정하지 않는 데, 아니 못하는 데 그들의 연애는 더욱 도덕성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의 연애의 고뇌가 진정으로 클 그때에는 고뇌는 반드시 그 연애에 해결의 방도를 열어 줄 것이다. 그 해결의 방도는 사랑하는 사람의 옆을 영원히 떠나버리는 괴테적 방도이기도 하고, 고민하는 정신을 질식시켜 버리는 베르테르적 방도이기도 하리라. 그러나 그

최고의 해결 방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사랑을 마음속에 가두어 버리고 의무의 부름에 따라가는 방도이리라. 앞에 말한 것과 같은 연애를 우리가 진정한 연애로 긍정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때문인 것이다.

(《조광》, 6권 2호, 1940. 2. 1)